

CFI도민거버넌스 세부분과 1차회의 결과보고

- 전기차분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도민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 코로나19로 인하여 100여명의 참여 도민을 5개의 분과로 나눠 상반기 중 각각 1차 회의 진행

□ 전기차분과

- 일 시 : 2020. 6. 13.(토) 10:30~12:00
- 장 소 : 제주부동산협동조합 회의실(3층)
- 참 석 자 : 전기차분과 14명 및 에너지공사 관계자 2명
- 주요의견
 - 제주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를 구체적 장소에 따른 분류하여 정보 제공요청(예시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세부분류 - 마트, 쇼핑몰, 주유소, 휴게소,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관련하여, ‘점유공간 최소화 이동충전서비스’가 있음. 자율주행로봇과 지하주차장 콘센트를 연계한 무선 충전 등 다양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음.
 - 폐배터리 활용한 가정용 ESS 설치를 지원했으면 좋겠음.
 - 2030 정책 수립 보다는 집행이 충실히 되어야 한다. ‘14년부터 보조금 7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한 홈충전기가 있다. 그 당시 6개 회사 있었는데, 점점 보조금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하나도 없다. AC 3상 차량이 단종되니까 충전기도 안 나온다. 현재는 거의 다 낡았다. 회사도 없으며, 부품교체가 아닌, 새걸로 교체해야 한다.
 - 업체 선정시, 실속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접지가 잘 되어야. 충전도 잘 된다. 제주도는 화산석이 많아서 접지가 다 다르다. ‘14년 설치한 급속충전

기 49대의 운영 경험을 봤을 때, 계절/날씨 변화로 접지가 불량이라 효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공용충전기 설치 시, 장기적 지질상태 확인 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콤보방식은 없고, AC/차데모는 훼손되어서 충전기가 더는 생산 안 된다. 공용충전기는 4500만원을 들여서 보급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 위해 충전기가 핵심이다. 활용성이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산 중에 설치된 곳도 있다.
- 도내 택시 4500대 운영 중 약 1,000대가 전기차이다. 전기차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인택시 차고지에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현재 신청하고 있는데 계속 탈락 중이다.
- AC 3상 충전기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 기존 렌트카와 택시 이용을 위해서 10% 라도 AC 3상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공유 충전기는 요금설정이 까다롭다. 가정용 충전기는 저렴할 때 사용해야 하는데, 공유 이용자는 비쌀 때 충전할 수 있다(300원/kwh). 결국 실효성이 없고, 전기요금 인상 시, 더 비싸질 수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본요금과 충전요금이 오르면, 가정용 충전기 수는 고장, 이사, 요금상승 등으로 충전기는 방치될 것이다. 결국 완속충전기 활용보다는 220V 사용할 수 있는 완속 이동용 충전기 시범사업 도입을 요청한다. 내 집에 내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주택 자가소유, 주차장 보유, 한전 불입금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 7월 1일부터 가정용 충전기 기본요금이 부과되는데, 더 유예해달라.
- 전기요금 보조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이전(2014년)부터 완속,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급속의 경우 대당 4,500만 이상 들여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되고 고장도 생기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 또한 신규 충전기 설치 장소에 현대, 기아 기준 DC로만 설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AC충전기도 설치되었으면 하고(트리플 충전기) 도, 관리기관에서 좀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음.
- 폐차 시 폐배터리로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보다 상품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재활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많은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양한 대책들이 채택될 수 있었으면 함.
- 새로 시작하는 안전들이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
- 충전기 관리 일원화(도·에너지공사).
- 오래된 폐충전기 수거해서 재활용 방안 마련.
- 자영업자(식당, 카페, 숙박업소) 활성화를 위해 도 지원 프로모션이나 혜택을 홍보.
- 공영주차장에 충전기 설치하는데 요즘도 1~2대 정도 설치를 하지 말고 최소 5대 정도는 설치 해줘야 충전하러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 시내 지역에는 5대 이상 썩은 설치를 건의.
- 폐배터리를 이용한 가정용 ESS 보급으로 수요성 전기 반응에 참여하여 잉여전력을 활용하고 ESS 사용자에게는 수익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음.
- 개인용 충전기를 공유 플랫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되 전력사용량을 분리시켜 이용자가 저렴하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음.

- 급속 충전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운동장 주변)에 설치 요망. 급속충전기는 이제는 설치보다는 충전기 관리에 중점 필요. 오래된 완속, 급속 충전기를 교체.
- 현재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 수정·보완을 먼저 시행하면 좋겠고,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함. 제주도가 하는 일들이 제주 시민들을 위한 일이길 바라며, 전문가들의 의견만큼 실제 생활하는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 반영이 더 커지면 좋겠음.
- 여러 예산과 관련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이 되었을 때 홍보적인 측면이 부족하게 되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홍보적인 측면도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음.
- 전기자동차 충전기 특구 관련 전기차 이용자들을 위해 충전요금 인하가 필요. 도의회 협조 조례 반영 및 예산 획득 필요.

○ 현장사진



‘20.06.13. 전기차분과 1차회의

□ 향후 추진계획

- 나머지 도민 거버넌스 세부분과 1차회의 개최 예정(에너지효율화분과, 청소년 분과)

- 분과회의 결과에 대한 참가자 공유(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 신재생e 분과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중심으로 2차 회의 추진
(재생에너지 수용성 증진방안 : 개발이익 공유방법과 범위 등)